

1. 여성NGO와 여성 풀뿌리 여성조직의 정체성

이 연구는 여성단체의 정의를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풀뿌리 여성조직"으로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NGO로서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그 기준을 '여성주의의 싹'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을 '여성주의의 싹'이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실은 이 논의는 여성단체의 정체성을 무엇에 기반해서 규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처음부터 논쟁적이었다.

풀뿌리 여성조직의 일부는 본인들의 정체성을 여성NGO로 두고 있지 않으나, 이 연구에서나 때로는 지자체에서는 굳이 여성NGO로서 해석하려고 하거나 너른 의미의 한 테두리로 묶으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그것이 여성단체, 여성운동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의 문제이든 아니면 본인들의 활동이 혼하고 일상적이라는 전제 속에서 그렇게 규정하든 여성NGO로서의 가치와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풀뿌리 여성조직들에게 '여성주의의 싹'을 애써 찾아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풀뿌리 여성조직은 풀뿌리 여성조직으로서의 가치와 비전이 있고 그들이 일정정도 우리 사회 여성에 대한 성역할을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면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풀뿌리 여성조직에게 굳이 '여성주의의 싹'을 찾거나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 등의 외적 자극을 주는 방식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그것을 여성NGO 지원 사업의 영역으로 사업화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든다.

이러한 경향은 실은 서울지역에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으로 지역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이 몇 곳뿐이 존재하지 않아서라는 상황 때문에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왜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지역활동을 벌이는 여성단체들이 존재하기 어려운 것인가에 이 연구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여성단체의 저변을 확산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장기적 전망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단체들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 지역사회 주체로서의 전환은 담보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목적과 지향이 다른 여성단체들과 풀뿌리 여성조직들을 그에 맞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행정의 잣대대로 일원화하거나 지자체의 요구에 맞춰야 지원가능한 구조도 바꿀 필요가 있다.

2. 거버넌스가 여성단체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

서울시가 지난 몇 년동안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목표로 많은 거버넌스를 시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의사결정과정에 개입이 제한된 거버넌스는 결국 지자체 행정력의 뒷받침으로 될 수 밖에 없으며,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부수적이거나 행정에게 실무적인 소프트웨어만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비주체적 입장으로 결합하게 된다. 여전히 공모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수주받는 갑을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여성단체로서는 실질적인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일보다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일이 더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협력할 수 있는 장의 부족,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부족 등 거버넌스 체계도 미비한 점도 아쉽다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도 일정한 관계 망이나 연결고리가 없으면 전혀 알 수 있지 않다.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3. 생존 자체가 화두인 여성단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생존기는 그것이 노동현장이든 여성단체이든 다르지 않다. 결혼한 여성은 여성대로 비혼의 여성은 그대로의 사회적 차별과 압박 속에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자발적 참여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활동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눈물겹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주체적 의지로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은 맞다. 그만큼의 자신들의 일정한 헌신도 필요한 영역이 있다. 그러나 그런 여성활동가들의 헌신과 삶을 너무도 당연히 사회적으로 차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활동가들의 활동은 지속가능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히고 만다.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여성NGO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NGO의 존재와 역할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며, 그것이 여성들의 사회활동이나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금석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사회적 노동에 대해 사회가 당연히 치러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여성단체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여성활동가들의 급여문제를 지자체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안마련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지속가능한 여성단체 활동은 여성활동가들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라고 하거나 개별 단체들의 능력에 맡겨놓을 때 여성단체들이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프로젝트 사업에만 집중될 수 밖에 없으며, 의제개발이나 더 폭넓은 저변확대 등은 모색하기 어렵다.